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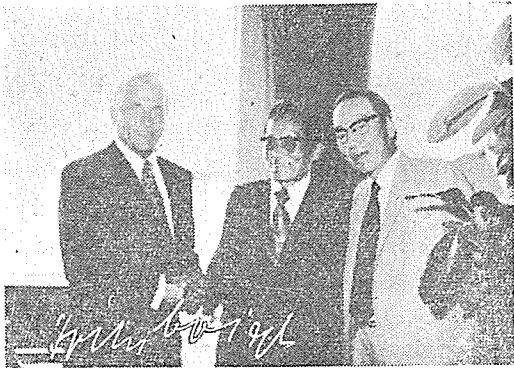
# 鼎談

## 科學技術力化는 이렇게!

### 技術再訓練 遊休勞動力 活用코

#### 合理的인 產學協同體制 확립運用돼야

★ 오늘날 科學技術의 振興은 國家政策의 重要課題로 다루어지고 있 ★  
 ★ 다. 따라서 이 科學技術力化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것인가는 學界의 큰關心事 ★  
 ★ 가 되어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金允基會長과 金東一副會長은 學術院主催 光復30周 ★  
 ★ 年紀念 學術會議에參席次 來韓한 獨逸BONN大學교수 Fritz Voigt 박사를맞아 ★  
 ★ 科學技術力化에 關한 鼎談을 나눴다. 다음 글은 鼎談內容이다. ★



(사진 : 좌로부터Fritz Voigt박사 金允基회장 金東一副회장)

#### <金允基 會長>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는 138個學會團體가 參與하고 있습니다.

이들 學會團體가 科學技術 振興과 開發에 效果的인 寄與를 하자면 어떠한 課題를 다루는것이 바람직하다고 Dr. Fritz Voigt는 生覺되십니까 高見을 들려 주시면感謝하겠습니다.

#### <Dr. Voigt>

저는 韓國에 온지 不過 10餘日 밖에 안되었기

—<편집자 주>—

#### ◆ 參席者

▲ 金允基회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 金東一副회장 ( " )

▲ Fritz Voigt 박사 (西獨本大學교수)

#### 배석

▲ 白永勳박사 (中央大교수·KID소장)

때문에 韓國의 仔細한 實情은 모릅니다.

다만 10餘日間 지내는 동안 저 나름대로 보고 느낀것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韓國에는 無限大의 開發 潛在力을 所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韓國이 갖고있는 勞動力 即 人力의 優秀性和 豊富한 勞動力을 볼때 世界各國이 必要로 하는 勞動力의 不足難과 極히 對照的이라는 것 입니다.

이제 金允基 會長님이 말씀하신데 對한 意見

을 드리겠습니다.

韓國은 이 豊富한 人力은 바로 雇用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즉 바로 勞動力化 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이러한 人力이 바로 勞動力化 되려면 그길은 金會長님이 運營하고 있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 擔當하여 技術力을 開發하는것이 며 이것은大端히 重要한 일이 될것입니다.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이일을 해야 될것입니다.

技術者(技術力) 育成 問題는 制度的인 狀況下에서 되는것보다 訓練이라는 側面에서 組織的으로 開發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機能은 政府에서 制度的으로 만은 할 수없는 境遇가 많습니니다.

특히 獨逸의 境遇를 例示하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같은 事業을 하는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이들은 主로 政府나 各企業體에서 研究費를 支援받아 두가지 目的을 中心으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技術訓練과 再技術訓練및 技術者養成等に 獎學金을 支給하여 訓練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學問의 研究를 爲해서 各大學 教授나 各企業體에 獎學金 및 研究費를 支給하여 研究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韓國의 技術力 問題를 놓고 볼때 經濟發展과 社會的인 均衡을 爲해 또 經濟發展과 여기에 參與하는 모든 關係者의 共同利害關係等 社會的인 側面에서 技術者의 輩出과 訓練하는 問題는 時急히 解決할 問題라고 봅니다.

이같은 일들은 科學技術團體가 促進 시킬 일이며 또 하나는 國際協力機構를 통해서 海外에 技術者를 派遣하고 海外에 나가 있는 技術者를 國內에 誘置할수 있도록 國際協력이 持續되어나 가야한다고 生覺합니다.

獨逸에있는 또하나의 科學技術團體가 있는데 이곳을 獨逸研究團體協會라고 합니다.

여기에 所要되는 財政은 全體豫算의 半切은 獨逸政府가, 半은 美國의 單位別企業團體에서 補助를 받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韓國의 經濟人聯合會나, 貿易協會

같은 곳에서 財政支援을 받고 있습니다.

이 團體에서는 研究事業課題를 全國 各大學 教授와 學生으로 부터 提示 받아 좋은 課題를 選定하고 研究費를 支給하고 있으며 技術 訓練 事業을 直接實施하며 獎學金을 주어 訓練하고 있습니다.

獨逸의 協會들은 꾸준히 繼續되어 오고 있습니다.

옛날 폭스바겐 이라던가 有名한 鐵鋼會社 社長이 別世할때 그의 遺言에 따라 財産의 全部或은 一部를 寄贈하는것과 같은 資源을 받아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訓練을 받게하여 正確한 職場에 就業토록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韓國에서도 누군가가 中間에서 이일을 해야 할것입니다.

本人이 恒常 主張하는 것은 젊은世代가 訓練을 통해서 技術者의 資質을 갖추고 育成될때 반드시 大學에 갈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한두가지 例를 들면 世界的으로 使用되는 담배 濾타의 境遇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國民學校나 大學教育도 받은바 없는 獨逸人이 考案開發하였다는 事實입니다.

自身の 才幹을 통해서 받은 研究費로 새로운 奇智를 發輝하여 담배 濾타 自動製造機를 만든것입니다.

또 올림픽이 打字機 考案者도 學校教育을 못 받은 다만 熟練된 技術을 통해서 開發되었다는 것입니다. 獨逸에는 이런 境遇가 許多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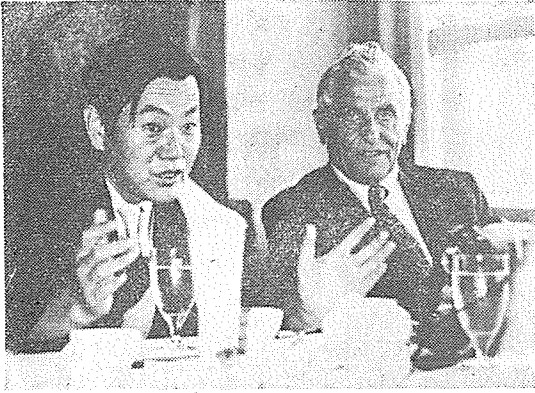
꼭 大學을 나와야 한다는 理由는 없습니다.

韓國의 都市와 農村을 돌아보고 發見한것은 農村 周邊에 또는 都市 周邊에 數많은 젊은 世代가 가야할 方向을 모르고 彷徨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再訓練을 通하여 새로운 勞動과 技術人力으로 利用한다면 엄청난 發展力을 나타낼것입니다.

韓國은 組織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韓國에 派遣되어 湖南肥料 技術者로 勤務하고 있는 포어만 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문익상이라는 孤兒를 데려다 기르게 되었습니다.



(사진 : 白永勳박사가 설명하고 있다.)

문군은 독일에 보내졌고 고등학교에 入學했으며 3年後 고등학교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했습니다.

獨逸사람도 아닌 韓國學生이 3年만에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한다는것은 거의 不可能한 것입니다.

그런데 可能했습니다.

이렇게 無限大한 素質을 가지고 있는 젊은 世代가 있는데 이들은 거의 無防備하게 放置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國家將來의 일입니다.

韓國도 技術力을 기른다는 立場에서 組織的인 計劃이 樹立 推進되어야 할것이라 봅니다.

獨逸에는 270萬名의 外國人 勞働者가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韓國에서는 간호원 2,000名, 광부 2,000名, 간호보조원 7,000名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故國에 돌아올때 광부나 간호원으로서는 일할수 있으나 專門家는 아닙니다. 專門家가 되려면 반드시 또 하나의 訓練을 通해야만 組織的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韓國人은 하나 하나는 素質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金東一 副會長>

크랴트스몐 씽(Crafts man ship)이 獨逸의 經濟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했다고 하는데 獨逸의

Crafts man ship에 對하여 參考될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 <Dr. Voigt>

첫째는 獨逸의 技術力이라는 것은 手工業 狀態가 過去나 只今이나 基礎가 됩니다. 手工業이 大規模化 된다 하여도 亦是 手工業의 性格을 恒常 가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마이스타制度(기술과 훈련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특정 기술을 제것으로 만드는)를 통해서 잘 發展되고 있습니다.

獨逸의 強點은 技術과 企業의 經營이 恒常 協力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代表的인것이 勞使協力입니다. 勞使協力的 가장 基本的인 原點은 技術協力이고 企業者가 技術을 理解하고 生産性 作業을 높이는것을 理解하고 企業은 成果의 配分을 正當化 해주고 어느 段階에 가면 組織的으로 技術의 마이스타制度가 企業에 連結되어서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모방할수 없는 獨逸이 가지고 있는 技術力이라고 봅니다.

手工業의 基礎위에도 마이스타 制度가 세워지고 그것이 企業的인 協력이 되어서 制度的으로 誘導되어야 합니다. 이 制度에는 監查役會가 있는데 理事會 보다 上位에 있으며 構成員은 企業代表 5名 勞働者가 5名 中立人이 1名 計 11名으로 構成됩니다.

勞働者 代表로 올라온者는 大部分 技術과 體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恒常 技術的인것에 關하여 主張하고 있습니다.

反復해서 主張하고 싶은것은 獨逸에는 失業者가 없다는 것입니다.

統計上으로는 大概 3~4%의 失業者가 나타나지만 이 失業者는 自發的인 失業者입니다. 한직종에서 他職種으로 옮겨가는 過程의 것입니다.

즉 職場을 옮길동안 待機狀態에 있는 失業者群입니다.

韓國의 失業者와는 다릅니다. 本人이 韓國農村에 가 보았습니다. 農業을 中心으로 하여 늘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工業은 都市에서만

發展하고 자라는데 農村에서는 空虛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할 자리가 없고 항상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農事를 짓다가 놓고하므로 有能한 人力이 자꾸 처지고 있는데, 이 “갭”이 사회적 “갭”이 되고 經濟的 “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生覺해 보면 여기에는 엄청난 失業群이 아직도 潛在할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經濟發展에 連結시키려면 技術의 힘을 가지고 再訓練을 통해서 만이 할수 있는데 體系의으로 누군가가 해야 할것입니다.

技術은 數 많은 多種技術이 있고 技術은 어제와 技術이 있는가 하면 來日의 技術이 있습니다 韓國은 來日의 技術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重要한것은 실제 노동력이 어느 程度의 技術을 갖고있느냐는 것입니다.

勞働者들은 새로운 技術을 찾고 있으며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로에 지치고 일에 타성이 생겨 좀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科學情報을 提供해 주되 分野別 工程別로 또는 段階別로 整理해 놓으면 技術者 自身이 배우기위해 찾아와서 한단계씩 올라가면서 배워갈수 있도록 해주어야겠습니다.

이들은 冊을 통해서 배울수 있는 처지가 못되

므로 그들이 技術을 익히려 할때 必要할것으로 (技術見習者의 立場에서 볼때) 豫見되는것을 準備하여 提供해 주는일을 누군가가 해야하고 技術指導와 情報를 모아주고 기술을 샘플링 해주고 하는일을 棼퓨터化 해야 할것입니다. 기술은 無限히 向上 發展해가고 있습니다. 멈춰서는 안됩니다. 기술은 20代, 30代, 40代의 技術이 있습니다.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 <金東一 副會長>

技術界에서 일하는데 가장큰 陰路를 느끼는것은 經濟學界와 技術界가 긴밀한 連結이 되어야겠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遊離되어 있는感이 있습니다.

經濟學界에서도 技術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면서 그 以上 技術에 對한 具體的인 協力과 投資方案에 對해서는 거의 “노 탕치” 하고 있는데 獨逸의 境遇 이런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Dr. Voigt>

大端히 좋은 質問을 하셨습니다. 獨逸에서는 職場 社會 또는 政府의 各種委員會는 반드시 經濟學界와 技術界의 人士가 共同參與하고 있으며 이런 會合에서 技術者의 發言은 特別 重要視 되고 있습니다.

## 投稿案内

새마을 技術奉仕團의 技術指導 活動實例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農村의 소득증대와 生活의 科學化를 促進하기 爲하여 많은 投稿를 바랍니다.

투고요령 : 원고지 (200자) 15매정도

寫眞(발전상 소개 활동소개) 1매

보낼 곳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편  
집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 76—561



(사진 : 鼎談광경)